

투명경영으로 세계 일류기업에 도전한다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산업의 기초소재로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첨단산업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꾸준한 수요증대와 발전이 기대되는 성장유망 종목이다.

황동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구리 함유량이 약 60% 내외이다. 절삭성·가공성·주조성 등 기계적 성질이 양호하고, 전기 및 열전도성이 우수하며 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내부식성·내해수성이 뛰어나, 각종 산업용 기계 제작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또 외관이 미려하여 각종 예술품, 공예품 제작과 장식용품 제작에도 많이 사용된다. 특히 무연 황동의 경우, 살균 등 항균 효과가 높아 의료기구 및 오·폐수 정화장치 등에 필수적인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다. 황동봉(黃銅棒, Brass Bar)는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자동차, 선박, 산업용 기계류 등 첨단 기초소재로 널리 활용된다. 국내시장 규모는 연간 약 15만 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끊임없는 연구개발, 경쟁력 선진국보다 월등

황동의 주요 제품은 주로 판과 봉으로 구분되는 데, 대창공업(주)은 주로 황동봉 분야에서 특화된 회사다.

대창공업(주)의 황동봉을 비롯한 동제품 생산능력은 15만톤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이다. 현재 시장점유율이 약 50~60%에 달한다. 방위산업체로 유명한 풍산도 대창의 경쟁사는 될지언정 적수는 되지 못한다.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국내는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도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시장개방의 물결에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세계시장을 선도하며 발전하고 있다.

대창공업(주)은 지난 30여년 간 황동봉 분야 국산화의 선두주자였고, 신제품 개발과 자동화설비 구축에 앞장서 왔다. 특히 국내에서 이 회사만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 압출기는 타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시아 최대규모-대창공업(주)

노사화합 모범기업 조시영 회장

일반인들 가운데 대창공업(주)이란 회사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황동이 대중소비재가 아닌 기초소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창의 황동 제품은 중화학공업에서부터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경공업에 이르기까지 각종 제품의 소재로 사용되며,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